



제02호 / '18.4.19(목)

지부교섭 속보

노사공동위원회 구성!
상병휴직 기간 보장!
기본급 146,746원 인상!

□발행처:교육선전부 □발행인:김정태 □주소: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3060번지 근로자복지회관 2층 □전화:043-236-5077 □http://dc.kmwu.kr

지부 요구안 딱 3가지 뿐이다

2차 교섭에서 지부 요구안 취지 설명

보쉬에서 2차 교섭 개최

2차 지부교섭이 4/19(목) 16시 한국로버트보쉬에서 개최됐다. 지부 교섭위원들은 아침 9시부터 상경하여 서울 콜트콜텍 본사 앞에서 투쟁 11주년 결의대회에 참석하고 내려와 지부교섭까지 강행군을 펼쳤다. 이 날 교섭에서는 지부 요구안에 대한 취지 설명을 진행했다.

지부 요구안 아주 간단하다

김정태 지부장은 모두발언에서 “사측이 지부 요구안 바로 수용할테니 나중에 임금교섭 내려오면 그때 교섭 재개하자고 할까봐 걱정이다.”며 우회적으로 지부 요구안이 사측에게 큰 부담이 없을 수준이라는 점을 표현했다. 사측 교섭위원은 “그런 걱정 안해도 될 것 같다.”며 응수했다.

지부 요구안은 3가지다. 1) 산별 임금체계 마련을 위한 금속산업 노사 공동위원회 구성, 2) 개인 상병휴직 치료기간까지 인정, 3) 기본급 월 146,746원 인상이다.

이중 산별임금체계 마련을 위한 노사공동위원회는 중앙교섭, 지부교섭, 사업장 보충교섭까지 모두다 들어가 있는 통일 요구안이다. 올해 이 요구안 쟁취 없이는 임단협 타결은 없다. 노사 공동위원회에서 산별 임금체계를 같이 논의해서 임

금 양극화 문제 해소방안을 논의하자는 취지이다.

두 번째는 개인 상병휴직은 치료기간까지 모두 인정하자는 것이다. 최근 조합원들이 건강상의 이유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치료기간이 휴직기간을 넘어버리면 퇴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다. 적어도 아파서 치료받는 기간만큼은 휴직기간으로 모두 인정하도록 하자는 취지이다.

마지막 세 번째 임금 인상 요구안은 월 146,746원 인상이다. 금속노조는 올해 임금 요구안을 2가지로 결정했다. 완성차지부는 월 116,276원 인상을 요구한다.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완성차 지부는 임금 요구안을 조금 적게 요구하고 부품사 등 하청업체는 요구안을 조금 더 높게 하고 있다.

차기 교섭에서 질의응답 진행 예정

이번 교섭에서는 취지만 설명하고 질의응답은 진행하지 않았다. 사측 교섭위원들은 차기 교섭에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차기 교섭은 4/26(목) 15시 대한이연에서 열린다. 올해 지부교섭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사측의 열린 자세와 적극적인 논의를 기대한다.

2차 교섭 속기록

올해 지부 요구안 정말 간단하다

사 : 바쁜 와중에도 서울까지 멀리 갔다오시느라 고생 하셨다. 항상 모두 발언에서 얘기하지만 각 사마다 상황이 다르고 지회마다 다르지만, 예전에도 그런 것처럼 합심해서 노력해서 가능하면 전체적인 합의가 빨리 될 수 있게 다 같이 노력했으면 한다.

노 : 우리가 사정상 10분 늦어서 미안하다. 오늘은 요구안 설명할 예정이다. 지부 요구안 딱 3가지다. 임금은 중앙에서 내려와야 교섭에 돌입할 수 있다. 임금요구안 빼면 딱 2가지이다. 솔직히 걱정도 있다. 사측이 오늘 이 자리에서 2가지 모두 수용할테니 나중에 임금교섭 내려오면 그때 다시 교섭 재개하자고 하면 지부가 준비하고 있는 투쟁계획이 다 어긋날까봐 걱정이다. 요구안 취지에 대해 설명하고 질의응답 받겠다.

사회 : 취지 설명 듣겠다. 질의응답은 설명 끝난 후 확인하겠다.

노 : 2018년 지부 요구안은 사업장 요구안, 지자체 요구안 두 방향이다. 오늘은 지부교섭 의제를 말씀드리겠다.

첫 번째가 산별임금체계 마련을 위한 금속산업 노사 공동위원회다. 중앙, 지부, 사업장 모든 교섭단위 요구안에 들어가 있다. 금속노조의 통일요구안이다. 올해 이 합의가 안되면 교섭 승인이 안된다. 금속노조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고민하고 있다. 규모별 임금격차와 임금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자는 것이다. 중앙교섭, 지부교섭의 방안까지도 다 논의하겠다는 취지도 포함돼있다. 합의되면 10월부터 실무위원회 구성해서 가동될 것이다. 사업주 대표들도

노사공동위는 심도있는 고민을 하셔야 한다.

두 번째는 상병휴직 기간 인정이다. 개인 상병의 경우 치료기간까지 휴직을 인정하자는 것이다. 사업장마다 휴직 기간, 임금 보전내용이 다르다. 지부교섭에서 다 논의하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임금은 각 사별 내용에 따르는 것으로 하고 기간에 대해서만 요구하고 있다.

세 번째 임금 요구안은 월 146,746원 인상이다. 기본급 대비 7.4% 수준의 인상액이다. 완성차지부는 월 116,276원으로 5.3% 수준 인상을 요구한다. 임금 양극화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보면 된다. 이상 3가지 요구안 설명드렸다.

사회 : 취지 설명에 대해 궁금한 점 있나?

노 : 요구안이 쉽지 않나? 사용자가 지부를 곤란하게 만들 수도 있다. 요구안이 너무 간단해서 차기 교섭에서 다 들어주겠다고 하고 임금교섭은 나중에 중앙에서 내려주면 그때 재개하자고 할까봐 걱정이다.

사 : 그런 걱정 안해도 될 것 같다. 차기 교섭 관련해서 KDK가 다음주 수~금 출장이다.

노 : 위임장 제출하고 다른 분이 참석하는 걸로 하자.

사회 : 차기교섭은 4/26(목) 15시 대한이연에서 진행하겠다.